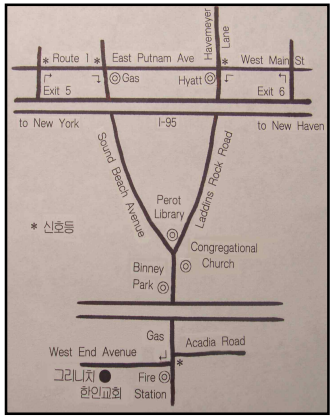
그리니치 한인교회 는 커네티컷 남부 그리니치에 자리잡고 있는,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모 임		시 간	장 소	비 고
주일예배	1 부	주일 낮 12시	본 당	찬양은 없이 40분 동안
	2 부	주일 오후 1시	본 당	예배 뒤 점심 및 친교
교회학교	주 일	주일 낮 12:45	교육관	성경공부 및 예배
	주 중	금요 저녁 8시	소예배실	중고등부 리더 훈련
말 씀 과 기 도	말씀나눔	화요 아침 10시	교육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	금요 저녁 8시	본 당	찬양, 강해설교, 기도
	기 도 회	토요 아침 6:30	본 당	말씀, 기도, 아침식사



◆ I-95 남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5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우회전 (E. Putnam Ave), 2) 첫 신호에서 우회전 (Sound Beach Ave.) 3) 기차 굴다리를 지난 뒤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West End Ave.). 4) 약 200미터 가시면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Old Greenwich 건물)

◆ I-95 북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6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직진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 (Harvard Ave.), 2) 첫 신호에서 좌회전 (West Main St. Rt. 1) 하고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Laddins Rock Rd.). 그 뒤는 위의 3) 이후와 같음.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주간소식지 발행인: 담임목사 권수경

GREENWICH KOREAN CHURCH
38 West End Avenue
Old Greenwich, CT 06870
(203) 637-8743 (203) 829-1595
Email: koreanchurch@optonline.net

Stamp Here

TO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GREENWICH KOREAN CHURCH
주간소식지 Weekly Newsletter
제 11권 36호, 2010년 10월 28일

하나님께서 올 부흥회에서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 각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따라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도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교회가 그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할 터이니 우리 교회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큰 개혁을 돌아보며 내 마음과 삶의 개혁을 꾀하는 날이니 부흥회를 통해 주신 말씀의 도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로 11월이 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겠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 더 많은 감사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면서 주보 및 사랑지를 한 단계 등업했습니다. 한글 2010도 새로 구입했는데 (이 사랑지가 첫 작품입니다) 프린터는 사둔 토너가 하도 많아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열 살도 넘은 기계를 최신 시스템에 끼워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기계를 어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적당히 잘 엮어 결국은 이렇게 사랑지를 찍어냈습니다.

이번 주는 사랑지를 하루 일찍 만들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하룻밤만 다녀올 거라 여러분이 사랑지를 받으실 즈음에는 아마 돌아와 있을 겁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 찬양예배 때 큰 반가움으로 모두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늘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특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라도 한 번 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썼지만 천지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단풍도 잎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 흔적을 가진 잎들이 함께 모여 큰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진 이들이 한 데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이 가을 느끼는 아름다움에는 하늘의 신비가 더욱 짙게 스며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 소식

지난 주말에는 가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상담사역도 활발하게 펴고 계신 이응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 "네 마음을 지키라 (잠 4:23)"는 주제로 금요일 (22일)부터 주일 (24일)까지 사

흘 동안 다섯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찬양팀 인도로 많은 찬양을 먼저 주께 드렸는데 악기 (피아노 장정희, 바이올린 최수온, 베이스 이현, 드럼 곽중모)와 목소리 (한진석, 박지수, 배종순, 지승의, 하영미)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온 교우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주께 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의 첫 집회는 찬양 후 권 목사님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최수온 교우님이 바이올린으로 "내 구주 예수님" 및 "힘들고 지쳐" 두 곡을 연주하여 주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날 말씀은 베드로후서 1:3-11이었고 설교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밑바탕인 믿음에 덕을 보태고, 거기다 지식을 또 절제를 공급하며, 나아가 인내와 경건, 그리고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고 우리 부르심 또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시간에는 마태복음 13:3-9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음 밭"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 가운데 길가 및 돌밭의 뜻을 살피고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돌아보았으며 개인기도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마친 다음에는 맥도널드로 옮겨 그윽한 분위기 가운데 식사도 나누고 이 목사님과 삶의 여러 문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찬양 후 정진기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어 곽중모, 김상범, 박지수, 한진석 네 분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를 불러 주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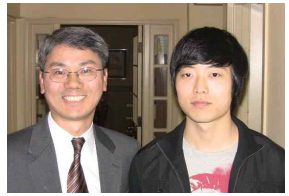
광을 돌렸습니다. 이 날 말씀은 잠언 4:23이었으며 설교는 "네 마음을 지키라"였습니다. 먼저 한국 텔레비전의 가정상담 프로그램 한 자락을 함께 시청한 다음 그 상담의 좋은 점 및 한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무엇인지 성경의 여러 이야기 특히 요셉의 생애를 통해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는 전날과 같은 본문, 제목으로 가시떨기 및 옥토가 어떤 밭인지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터 잡고 있던 세상의 염려 및 재리의 유혹이 어떻게 말씀의 성장을 막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 모두가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날은 시간 때문에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한진석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있은 후 성가대가 "죄 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불러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14-16이었고 "Shadow Land"라는 말씀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일 집회 때는 장학일 목사님과 박성민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맡아 주셨습니다. 이어진 사귐의 시간에는 이광배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신 사랑의 음식을 함께 먹으며 주 안의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 지난 주말의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는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신 은혜를 더욱 잘 간직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 지난 주일 송유순 권사님이 처음 나오셨습니다. 송 권사님은 시카고에 사시다가 이번에 그리니치로 이사를 오셨는데 송경호 교우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정착을 위해 또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사진은 주 전 처음 나오신 임창현 (Jay Lim) 교우님입니다.

3)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필복덕 권사님과 곁에서 도우시는 박석남 집사님, 이상만 교우님과 도우시는 천아라 교우님, 김광자 권사님과 도우시는 지승의 집사님, 캘리포니아의 이귀애 권사님, 캐나다의 목정수 집사님, 박상원 교우님과 박재실 권사님을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